



9. 부칙

○근거규정 : 제2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등에 따른 경과조치)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또는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7조 내지 제77조의4, 제79조의2 및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근거규정 : 제3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RI 또는 RG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근거규정 : 제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RI 또는 RG의 사용신고를 한 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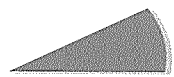
상으로 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종전의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함

-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자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

○근거규정 : 제5조(허가사용자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근거규정 : 제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 인허가 규제 철폐 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해외과학동정

조종사들이 원전 작업자 보다 많은 방사선을 받는다

국제선에서 탑승하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종사하는 업자에 비하여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세배에 달한다고 일본의 일간지가 보도하였다. 일본의 비행승무원 조합동맹이 지난 6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거리를 운항하는 국제선의 승무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주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예상보다 많이 피폭된다고 일본의 매일경제 신문이 보도하였다. 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연간 700 800시간을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평균적으로 3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지만 일본 과기청은 원전작업 종사자의 연간 방사선피폭 허용선량을 50mSv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선의 승무원들은 정부의 연간 방사선허용치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받지만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원전종사자의 평균 피폭량보다 세배나 많은 방사선의 피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동경을 운항하는 노선과 같은 장거리 운항 승무원들은 우주 방사선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신문은 북극 부근을 지나가는 경로가 우주의 방사선 선량을 가장 크게 받게 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구상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자연 방사선을 받게 되며 특히 일부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이 평균 원전 종사자의 피폭량을 상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의 대기와 자장은 대부분의 우주방사선을 차단하지만 10,000미터(32,800피트) 고도의 방사선량은 지상과 비교할 때 100~2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Reuterhttp:// www.infoseek.com 97.10.11]

Three Mile Island 원전 매각 추진

미국 상용 원자력 발전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Three Mile Island 원전이 역사상 처음으로 매각되는 원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원자력 산업체 관리가 전했다. 미국의 사용자 산업이 인허가 규제 철폐 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이 발전소의 소유주들은 잠재적 매입자와 협상에 들어갔다. Parsippany사와 뉴저지주 GPU사는 TMI와 Forked River 소재의 Oyster Creek 원전을 묶어서 패키지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자력 산업체의 잠정적 매입사로는 미국내 2대 원전 운영사인 필라델피아 소재의 PECO Energy사와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Duke power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PU사의 대변인은 현재의 교섭 현황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이사안이 대외적인 만큼 더 이상 밝힐수는 없으며 우리는 현재 대외비 협약에 서명을 한 단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GPU사는 지난 4월 Oyster Creek 노후시설의 매각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수주 후에 1,400Mwe의 전력을 생산하는 13억불에 달하는 두 개 발전소의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GPU사의 대변인에 의하면 패키지 세일이 이루어지면 GPU사는 원자력 산업에서 빠지게 될 것이며 전력생산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GPU사는 이 두 개의 원자력 시설이 시장경쟁에서 구매력을 당기게 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 온 사업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소재 NatWest Securities사의 에너지 산업 분석가는 이 발전소들의 매매는 단지 시간의 문제라며 매매 전망을 낙관하였다. Three Mile Island는 Harrisburg의 Susquehanna River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979년 3월에 노심 용융과 방사성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폐쇄된 바 있다. 이 원자력 시설의 사고 원자로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지 않았으며, 두개의 원자로중 다른 하나의 원자로는 아직 운전중에 있다. 미국 원자력계위원회 관리들은 TMI 원전의 매각은 미국 원자력 산업에서 최초의 매매가 될 것이며 TMI의 과거 사고 경력이 잠재적 매입자에게 별도의 어떤 규제 장애물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실바니아주에서 4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PECO 에너지사는 다른 두 개의 원자로 소유에 관심이 있으며 지난달에 British Energy사와 연합으로 현재 운전중인 미국 원전의 구매에 대하여 연합 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연합 벤처의 이름은 AmerGen Energy사이다. 영국의 판단은 PECO사가 TMI의 인수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North & South Carolina 주의 7개 원전의 운영자인 Duke Power 사는 18년전 사고 이후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게 비하여 이 시설에 더욱 친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 캘린더

- 여류 물리학자 퀴리 출생 1867년 11월 7일
- 독일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발표 1915년 11월14일
- 미국 수소폭탄실험성공 1952년 11월16일